

주간이다. 이 주간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내용이 있다. 복음 안에서의 참된 감사 회복이다.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에 두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집중이 안 되고, 틀린 집중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너무 일상적인 병 중에 하나가 ADHD라는 병이다. 집중이 안 되니 산만하고, 그러면서 공격적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다. 우울증, 집착, 중독, 여기서 나온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문제로 예언된 것이다(딤후3:1-2). 감사가 없으니 모든 것이 피해의식, 불평, 원망, 미움, 분노, 이기주의로만 가득 찬다. 내가 가진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을 때는 본인도 살고, 모든 인간관계, 사회도 풍성해진다.

1. 영적인 면에서도 이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

- 1) 구원 받은 우리는 절대 실패하고 무너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 해방받고, 승리하고, 길을 찾은 자들이다. 그런데 왜 성도에게 스트레스, 갈등이 많고, 고난, 실패를 반복하는가?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에서 해방 받고, 광야를 가면서 계속 고난, 실패를 반복한 이유가 그것이다(고전10:11).
- ① 400년 노예에서의 해방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저주와 운명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 율월절의 비밀이다.
 -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운명이 있다(롬5:12, 19). 원죄이다. 조상과 가문을 통해 흘러 내려온 운명이 있다. 가문의 대물림이다. 영원히 계속될 운명이 있다. 지옥 저주이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이것이 끝났다(그리스도). 세상에는 지금도 여기서 못 빠져 나오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
- ②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오순절의 비밀이다.
 - 광야는 구원받고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의 모습이다. 세상에는 여전히 문제 고통이 계속된다. 피할 수 없다. 그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체험해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과거에서 시작된 숨은 상처, 노예 근성, 치유 받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준비되어 마침내 가나안을 살리고, 후대에 축복을 계승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이것이다.
- ③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천국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장막절의 비밀이다.
 - 감사를 놓치니 작품은 커녕 모든 것이 갈등이고, 나중에는 사단에게 당한다(민21:4-9).
 - 물론 지옥 심판은 끝났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체질이 되면 결국 가나안 정복이라는 축복은 놓치게 된다.
- 2) 감사를 회복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표현이 되고, 그때 넘치는 응답이 시작된다(골2:7).
 - ① 참된 예배, 응답받는 예배가 뭐냐? 감사를 회복한 예배이다(시50:24).
 - 내가 받을 저주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 대한 감사, 직접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해주신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 지금도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 대한 감사이다.
 - 그리고 한 주간동안 받은 은혜, 응답, 한가지만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감사해보라. 응답이 넘치게 될 것이다.
 - ② 그때 내 인생에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과 통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
 -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교회와 현장과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 3) 그 감사를 회복할 때 내 안의 상처, 영적 문제, 무너진 인간관계, 심지어는 불치병도 치유된다.
 - ① 마음이 무너질 때 영성, 인간관계, 건강, 다 무너진다.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 원망스러운 것은 잠깐 내려놓고, 단 한가지만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라. 그때 흑암이 꺾인다.
 - 과학적으로도 내 뇌가 그렇게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기억과 망각의 축복)
 - ②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병, 불치병도 치유할 것이다(약5:15).
 -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니다. 참된 감사가 회복될 때 인생 전부가 치유되고, 세상 살릴 자로 쓰여질 것이다.

2. 그러면 진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세가지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감사 속에 살아야 할 절대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에 드릴 감사의 핵심이다.

- 1) 내가 영원한 죄, 저주, 운명, 지옥에서 해방 받은 것을 감사하라. 그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이다(벧전1:8-9).
 - 우리의 과거 문제는 끝났고, 모든 것은 발판이 될 것이다(사43:18-19)
 - 우리의 현재 문제는 복음 체험하는 기회이고, 내가 치유받고 그릇 준비되는 시간이다(롬8:28).
 - 우리의 미래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으셨고, 영원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표이다(딤후4:7-8).
- 2)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부족함까지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후12:9).
 - 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고전1:26-29),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상과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다(요14:16-18).
 - ② 우리가 부족할 때 드리는 헌신이 중요한 이유도 이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을 체험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 드리는 헌금, 헌신이 중요하다(빌4:15-19)
- 3) 다가올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라.
 - ① 우리에게 첫 번째 미래는 후대이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은 후대에게 축복으로 계승될 것이다.
 -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축복이 천대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출20:4-5)
 - 디모테의 깨끗한 믿음과 헌신이 그 어머니와 할머니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이겠는가(딤후1:5)?
 - 다윗의 믿음과 헌신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양을 치며 하는 24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겠는가?
 -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면서도 천부장들이 먹을 치즈덩이까지 보내는 여유가 이새에게 있었다(삼상17:17).
 - ② 우리에게 두 번째 미래는 영원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끝난 정도가 아니다.
 -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그때에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면류관이 따로 있다고 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다. 그 보좌의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다.
 - 그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또다른 의미이다.
 - 돈 많은 불신자들이 미래 도시, 화성까지 정복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고 하나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 오늘의 나, 나의 현실, 이 시대의 현실에 속지 말고, 미래를 보며 갱신하고, 영원한 미래를 보고 헌신하라.

결론-감사로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감사로 치유 받고, 감사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한다.